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10회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훈련이 육상 대표 선수가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저우 감동

우리가 잇는다

성전환 여성도 LPGA 무대 뛴다

'태어날 때 여성' 조항 폐지...내년부터 투어 출전 허용

성전환수술로 여성이 된 선수들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LPGA는 2일(한국시간) 선수 투표를 통해 '태어날 때 여성이어야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라나 로레스(57)라는 성전환자가 세계 드라이버 장타 대회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0월 LPGA와 대회 주최 측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어진 것이다.

전직 경찰관인 로레스는 200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2008년 대회 여자부에서 비거리 254야드를 기록하며 우승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올해도 여자부에 출전하려고 했으나 대회를 주최한 '롱 드라이버스 오브 아메리카'는 '태어날 때 여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여자부에 출전할 수 없다'는 LPGA 규정을 내세워 로레스의 출전을 막았다.

로레스는 LPGA 투어의 정책이 캘리포니아주 공민권에 어긋난다면 LPGA와 주최 측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레스는 5월 LPGA 캘리포니

스쿨 출전 신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거절당해 '편견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 규정이 바뀔 때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LPGA 대회를 금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4년 성전환 수술을 후 2년 이상 후로문 치료를 받으면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고 미국골프협회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도 성전환자들의 출전을 허용했으나, LPGA만 '출생 당시 여성'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이클 완 LPGA 커미셔너는 수주 내에 현행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투어 부터는 성전환자의 출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애인 AG대표팀 종합3위 목표 구슬땀...사격·수영 '골드러시' 기대

'광저우의 감동, 우리가 이어간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최고 성적으로 4회 연속 종합 2위의 랭킹을 달성한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장애인 대표팀이 그 열기를 재현한다.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을 암울 앞둔 2일 한국장애인아시안게임 대표팀은 경기도 이천의 장애인종합훈련원에서 막판 담금질에 한창이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훈련원에는 골볼과 농구, 수영, 보자이 등 10개 종목 선수들이 들어와 훈련하고 있다.

오는 12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경기장에서 막을 올리는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18개 종목(19개 세부종목)에서 45개국 5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8일간 열전을 벌인다.

특히 이번 광저우 대회는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첫 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화려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아시안게임과는 별도로 열려 왔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전 종목에 선수 198명을 비롯해 30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35개를 포함해 종합 3위. 4년 전 한국은 중국과 태국에 이어 금메달 58개를 차지해 3위에 오른 바 있다.

한국은 모든 종목에서 메달 획득을 노리고 있는데, 특히 사격과 배드민턴, 수영 등에서 '골드 러시'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올해 장애인체전 5관왕에 빛나는 수영의 '얼짱 스타' 김지은(27)을 비롯해 2008년 베이징을 리우드 수영에서 은메달을 딴 민병언(24), 육상 간판 훙석민(34) 등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주자들이 총출동한다. 선수단은 오는 6일 훈련원에서 결단식을 갖고 8일 결전의 현장인 광저우로 떠난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장춘배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은 훈련원에서 열린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위까지 노력할 수 있다"면서 "이천훈련원을 연 뒤 나가는 첫 대회라 선수들 모두 욕심이 대단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금왕 후보 최나연 '후배 사랑'

LPGA재단에 3만달러 기부...주니어 선수 육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나연(23·SK텔레콤)이 LPGA 재단에 3만달러를 기부했다고 2일 투어 사무국이 밝혔다.

최나연은 시즌 마지막 대회인 LPGA 투어 챔피언십에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그랜드 사이프러스 골프장에서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 기부금은 주니어 선수들의 골프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나연은 2008년 LPGA 멤버로 입회

해 통산 4승을 올렸으며 이번 시즌에는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 최저타수상을 노리고 있다.

최나연은 "LPGA가 없었다면 전 세계를 둘며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태 日 투어 상금왕 레이스 순항

시즌 마지막 대회 첫날 공동 5위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시즌 마지막 대회 JT컵 첫날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인 최초로 상금왕을 향해 순항했다.

김경태는 2일 일본 도쿄의 요미우리 골프장(파70·701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이글 1개에 버디 2개를 잡아내 4언더파 66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김경태는 상금 1억7611만999엔을 쌓아 상금 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상금 랭킹 2위 이시카와 료(일본·1억4728만9779엔)는 1라운드에서 6오버 76타를 쳐 최하위인 28위에 머물렀지

만 3위 이케다 유타(일본·1억4005만8830엔)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케다는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담아 7언더파 63타를 적어내며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이케다가 우승 상금 4000만엔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김경태의 성적에 따라 상금 레이스 역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태가 이번 대회에서 5위 밖으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상금왕을 무난하게 차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슈퍼 맘' 클리스터스 WTA 올해의 선수

WTAs 2일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선수상은 팬과 미디어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리스터스가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05년에 US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그해 WTA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 클리스터스는 2007년 은퇴했다가 지난해 8월 복귀한 지 2년째에 다시 한번 올해의 선수로 뽑히는 기쁨을 누렸다.

복귀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US오픈에서 우승하며 패리를 일으킨 클리스터스는 올해 들어 더욱 불로운 기운을 과시하면서 US오픈을 2연패로 생기며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또한 올해 WTA 선수협의회 등을 통해 둘로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플레이어 서비스' 상도 함께 받았다.

/연합뉴스

코리아 월드컵 유도 금메치기

광저우 메달리스트 출동 왕기준도 명예회복 나서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100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쳐 올 초 KEPCO45에 입단한 뒤 트레이드되는 형식으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았다.

그러자 다른 구단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KOVO는 상법위원회를 열어 첫째 연봉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했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재심을 청구했고 KOVO는 벌금액을 현저하게 낮추는 대신 1라운드에 뛰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문성민은 오는 28일 우리캐피탈과 2라운드 첫 경기부터 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그러나 다른 구단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KOVO는 상법위원회를 열어 첫째 연봉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의 벌금 징계를 했다. 이에 현대캐피탈은 재심을 청구했고 KOVO는 벌금액을 현저하게 낮추는 대신 1라운드에 뛰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문성민은 오는 28일 우리캐피탈과 2라운드 첫 경기부터 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4일(토)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5일(일)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6일(월)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7일(화)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8일(수)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9일(목)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체육도연맹 대회 12월 10일(금) 7시 30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자부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과 100kg급 김수완(용인대)을 비롯해 여자부 78kg급 정경미(하이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 등이 남녀 대표팀의 에이

스로 나선다.

또 여자 무제한급 은메달리스트 김나영(한국마사회)과 여자 57kg급 은메달리스트 김간디(용인대)와 남자 73kg급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머문 왕기준(용인대)도 명예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